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 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시편 121편)

[제 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시편 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여좌에 앉으신다.◎  
 [제 2독서] 에페 1,17-23<또는 히브 9,24-28; 10,19-23>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루카 24,46-53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141 입당 141	봉헌 212 봉헌 137 211	성체 499 성체 161 178	파견 245 파견 63
----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승천대축일(5월 12일)		성령강림대축일(5월 19일)		삼위일체대축일(5월 26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이마리크레센시아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김글라라(순희)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최분도(환준)	이레이몬드(창용)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옥)	임루카(승원)	이베로니카(경란)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하늘로 올라가셨다

주님승천대축일인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카 24,51)고 전하며, 1독서에서는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사도1,9)고 표현되어 있으며, 2독서에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에페1,2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을 전하는 성경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은 성경을 쓸 당시의 사람들의 고유한 표현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승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승천을 다룬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아담의 6대 후손인 에녹**이 산 채로 하느님께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으며, 열왕기 하권 2장 11절에는 **예언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토빗기 12장 20절에는 **라파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통하여 성경이 쓰이던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표현법이 지금의 표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는 하느님과 천사와 성인들이 살고 있고, 지하에는 마귀들과 악인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표현은 “**사실 표현**”이 아니라 “**신앙고백**”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표현이며, 인간으로 오셨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뜻이며, 구원사업을 완성하셨다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승천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 다음 말씀은 이 점

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루카24,52-53)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인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의 준비로 성체를 정성껏 받아 모시고 그 힘으로 성당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물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또한 기회가 되는대로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눈을 환히 밝히고, 그분이 주실 상속의 영광에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매일 매일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청소년부 소식

### 1. 5월 12일 주님 승천 대축일

- 주일학교 11시
- 영어미사 12시 반

### 2. 주일학교 봄학기 종강

- 5/12 : 오늘 수업 후
- Grace Market 있습니다.
- 물품을 준비해주신 학부모회에게 감사드립니다.
- 가을학기 개학 : 9월 8일

### 3. 5월 19일(다음 주일)

- 합동미사
- 첫영성체 식
- 많이 축하해주세요!

### 4. 교사/보조 교사 모집(2013년 가을학기)

- 모집 대상
  - 학부모님, 대학/대학원생(비영어권)
- 초등학교 저학년반  
(Pre-k 반, Kinder-1학년 반) : 우선 모집 0 명
- 청소년부장에게 연락주세요.  
sjbaek(at)gmail.com

### 5.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 날짜 : 9월 8일
- 주제 : 신앙과 자녀교육
- 지도 : 본당 신부님

### 6. Charter for the Protection of

#### Children and Young People

어린이와 미성년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인터넷(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webpage)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Creating a safe environmen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Healing and reconciliation of victims and survivors;
- Making prompt and effective response to allegations;
- Cooperating with civil authorities;
- Disciplining offenders;
- Providing for means of accountability for the future to ensure the problem continues to be effectively dealt with through the Secretariat of Child and Youth Protection and the National Review Board.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hild-and-youth-protection/charter.cfm>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는 Google search:

CharterfortheProtectionofChildrenandYoungPeople)

### 7. 청소년부 소식 안내

- 소식지: <http://goo.gl/x8azm>
- Twitter: @StAndrewKimYM

생명의 말씀

향주덕(向主德)인 믿음, 희망, 사랑

믿음이라고도 하는 신덕(信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도 사도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당신과 진리를 알아듣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중에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신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로 죽으셨다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도 하는 망덕(望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 목적으로 여기고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은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느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망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망을 둘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도달할 곳은 주님이 계신 그 곳 뿐입니다. 사랑이라고도 하는 애덕(愛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단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나날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애덕은 증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덕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하느님과 합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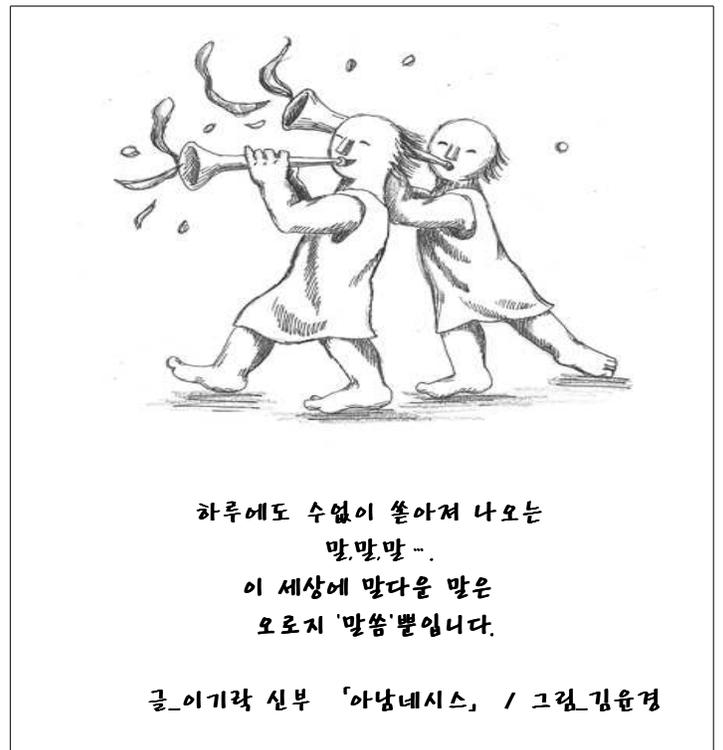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덕행들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되는 부활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시기까지와 맞물려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생활을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인의 영적 여정은 신덕을 통하여 예수 부활대축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이시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이 영적여정은 망덕을 통하여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 우리의 영적 여정의 종착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느님 대전에 참여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여정은 애덕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웃과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말씀의 향기

기분 좋은 용서

‘키우기는 누굴 키웠다는 거야?’ 얼마 전 우연히 세무서에서 일할 때의 직속 상사였던 계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다들 「바람의 딸」 한비아 알지? 내가 키웠잖아.” 라는 게 아닙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는 그때 대학에 떨어지고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 세무서에서 일이 끝나자마자 클래식 다방 디제이로 일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날아가야 할 판인데, 이 사람은 번번이 별것 아닌 일로 야근을 시키며, ‘고졸 주제에 클래식은 무슨 클래식이냐’, ‘모닝 커피를 대령해라’, 심지어는 저를 “야!” 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야’ 가 아니라 ‘한비아’ 입니다.” 라고 하니 그렇게 말대꾸하면 당장 잘라 버리겠다고 날마다 제 속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리고 힘없는 19살 한비야가 당했던 모욕에 가까운 지나가는 ‘말’ 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옛날 일기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 그가 제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가 적나라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흘린 눈물 자국이 있는 페이지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자. 그러면 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30년도 넘은 일이지만 이 사람이 새삼 미웠습니다. 그날 밤, 자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에서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니요. 상처 준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상처받은 제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다음날에도 머릿속에서 ‘용서’ 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 이라죠? 영어로는 ‘forgive’, ‘완전히’ 라는 접두어 for와 ‘주다’ 의 give가 합쳐져 ‘완전히 주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퍼뜩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거구나!’ 다시 계장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져보면 이 분은 사회생활을 처음하는 20대 새내기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났직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며 어금니를 악물고 열심히 살게 해주었으니 미워할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내가 통 크게 용서해주고, 마음속 응어리를 말끔히 털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마태 6, 14)라고 했습니다.

용서해주면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불어 제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일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얼떨결에 받아온 그분의 명함을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장님이 저를 키우신 것, 맞아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한비아 비아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머무름**

**저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추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이루는 일치 안에서,**

**무고한 인간을 직접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항**

가톨릭전례

성모성월의 유래와 성모 공경 교리

**\*성모성월 유래와 의미**

카스티야(스페인 중부 옛 왕국)의 왕 알폰소 10세 (1221~1284)는 5월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풍요로움을 처음 결부시킨 이다. 그는 5월 한 달간 특히 마리아를 위해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이때부터 5월을 성모의 달로 기념하는 전통이 생겨나 서방교회로 퍼지기 시작했다.

성모성월이 구체화된 것은 17세기 말이다. 1677년 이탈리아 피렌체 부근의 도미니코 수련원에 성모를 특별히 공경하는 단체가 생겨 5월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축제를 마련했다. 이때 신자들은 '성모호칭기도'를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화관을 봉헌하는 등 성모신심을 고취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전구하고 계시는 성모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다.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란 것이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통해 평생 하느님 뜻에 순종한 성모처럼 하느님을 뵈기를 염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다.

교회는 성모를 '하느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 '평생 동정하신 마리아', '원죄없이 잉태되신 분', '신앙인의 모범' 등으로 칭하며 공경한다.

교회가 성모를 하느님 모친으로 공경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느님이신 예수를 낳았기 때문이다. 성모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이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도 된다. 예수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또 성모를 평생 동정녀라고 고백한다. 이는 '하느님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처녀에게서 인간을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또 '예수가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신앙고백의 의미도 있다.

교회는 나아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고백한다. 마리아는 여느 인간들과 같은 인간이지만, 하느님 아들을 잉태하는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따른 신앙고백이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원죄없이 태어났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완전함을 간직했던 성모는 세상 삶을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고 교회는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하느님의 아들을 낳은 분의 육체는 무덤에서 부

패할 수 없다는 신앙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도 성모처럼 종말에 천상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세계 성모성지**

현재 성모성지로 지정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1700여 곳이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 성모성지가 있으며, 한국에는 남양·매곡 성모성지 두 곳이 있다.

**# 1. 루르드 성모성지**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북쪽 산기슭에 있는 소도시 루르드.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곳에서 18차례에 걸쳐 성모 마리아가 소녀 베르나데트 수비루에게 발현했다. 발현한 성모 마리아는 베르나데트에게 "나는 원죄없이 잉태된 자(Immaculata Conception)"라고 밝히며, 발현장소에 성당을 짓고 루르드 샘물의 원천을 가리키며 그 물을 마시며 씻도록 했다. 루르드 성모가 마시고 씻도록 한 샘에서 4000여 건의 치유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며,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기적은 지금까지 68여 건에 달한다.

**# 2. 파티마 성모성지**

성모 마리아는 1917년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 파티마에서 5개월간 6회에 걸쳐 발현했다. 루치아와 그녀의 사촌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등 세 명의 어린 목동에게 발현한 성모는 △속죄 △목주기도 바칠 것 △성직자를 위해 기도할 것 △세계 모든 이를 성모의 티없는 성심께 봉헌할 것 △매달 첫 토요일에 속죄의 영성체를 할 것 등을 당부하면서 그 대가로 많은 영혼이 구원과 세계 전쟁의 예방, 러시아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약속했다.

**# 3. 판치엔산 성모성지**

신앙의 자유가 여전히 허락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도 성모성지가 있다. 중국 산시성 성도 타이위안(太原)교구 판치엔(阪泉)산 성모성지는 중국교회 대표적 성모성지다. 1783년 박해를 피해 이곳에 자리 잡은 스페인 출신 작은형제회 선교사와 신자들이 이곳에 동굴을 파 성모상을 모시며 살았다. 1897년 이곳에 판치엔산 성당이 건립됐으며,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곳을 전대사 특전을 얻을 수 있는 성모성지로 공식 공표했다.

**# 4. 남양 성모성지**

한국교회 첫 성모성지인 수원교구 남양 성모성지(경기도 화성군 소재)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손에 목주를 든 채 순교한 이름 없는 순교자들을 현양하고자 지어진 곳이다. 1991년 성모 마리아께 봉헌됨으로써 한국교회 첫 성모마리아 순례지로 선포됐다.

참조 평화신문(2013. 5.06)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5월 12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서연)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황데레사(미대자)	가족
	연	부모님	원프란치스코/젬마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김요셉피나(영엽)	정카타리나(상은)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정분다	유마리아
	생	염파트리샤(명련)	전례성가대
	생	정안드레아(일양)	김젬마
	생	김안토니오(휘)	정스텔라(애리)
5월 14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5월 15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5월 17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5월 18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생	정로사(화봉)	정안젤라(기숙)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7	226	46	359
헌 금	\$548	\$1,185	\$42.50	\$1,775.50

< 교무금 > \$4,360

정기환(5-8) 정경희(5) 구천남(1-6) 양인심(3-5)  
 김상실(5-6) 김원덕(3-5) 김순이(5) 송분학(5)  
 채용분(5) 전숙희(5) 고연석(5) 유춘성(3)  
 유경돈(3) 남금지(5) 김영순(5) 김수연(4-7)  
 이경섭(3-5) 조진석(1-4) 소명환(5-6) 정진희(5)  
 임윤택(5) 이성재(3-4) 이선희(5) 육승주(5)  
 김옥녀(5) 전문자(5) 황정희(5) 김관숙(5)  
 장진혁(2-3) 장찬호(4-6) 변귀태(5) 김정복(5)  
 김청남(5) 이명란(5)

< 성소후원금 > \$180

김순이(5) 송분학(5) 채용분(5) 전숙희(5)  
 고연석(5) 조진석(1-4) 소명환(5-6) 정진희(5)  
 임윤택(5) 이선희(5) 김정복(5) 이명란(5)

< Bishop's Appeal > \$50

이선희(5) 변귀태(5)

< 감사헌금 >

민지홍 \$200 익명 \$1,00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1,015.28	-	\$311,015.28
봉헌금	\$291,545.28	-	\$291,5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5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 오늘 간식은 김유한 베드로/마리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5월 19일 Catholic Charities

◆ 신앙의 해를 위한 성인교리반

시작 : 5월 21일(화) 저녁 미사 후(약 6개월간)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예비자 교리반(주일반)을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야외미사 안내

일시 : 6월 2일 교중미사  
장소 : Joaquin Miller Park  
\* 8시 미사 있습니다.

◆ 장학기금 마련 Walkathon 행사 및 도네이션

\* Walkathon : 6월 2일 야외미사 전 오전 9시~10시 40분  
접수 : 친교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구역장회의 : 5월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평협회의 : 5월 19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울뜨레야 모임

5월 23일(목) 저녁 미사 후 106호실

◆ 신앙의 해 성경가훈 책자를 위한 가족사진 촬영

촬영접수 : 12일(오늘) 친교실  
촬영 : 5월 19일 아침미사/교중미사 후 성모상앞(주차장쪽)  
\* 사진촬영을 못 하시는 가정은 접수처로 사진을 가져  
오시거나 [schun3@netzero.com](mailto:schun3@netzero.com)로 보내주십시오.(6월1일까지)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덴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5월 구역모임 **지에서 19 강**

|       |             |              |
|-------|-------------|--------------|
| 2 구역  | 5월19일(일) 6시 | 임장만 베드로 댁    |
| 4 구역  | 5월18일(토)6시반 | 왕혜영 에메렌시아나 댁 |
| 5 구역  | 5월26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6 구역  | 5월18일(토) 6시 | 이창용 레이몬드 댁   |
| 7-2구역 | 5월26일(일)미사후 | 교육관 106호실    |
| 8-1구역 | 5월26일(일) 6시 | 이재우 야고보 댁    |
| 9 구역  | 5월18일(토) 6시 | 백승진 미카엘 댁    |

◆ 북가주 한인 천주교 연합 골프대회

일시 : 5월 18일(토) 오후 12시 반(샷건)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10051 Doolittle Dr. Oakland  
참가비 : 남자개인 \$90 여자개인 \$80 부부 \$150  
문의 및 접수 : 변귀태 성우안토니오 707-696-7743  
김철우 가브리엘 510-910-2239

◆ 향심기도 피정

일시 : 7월 26일(금) 오후 6시 - 7월 28일(일) 오전 11시  
장소 : Burlingame 에 있는 Mercy Center  
참가비 : \$260(독방)  
지도 : 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이승구 신부님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90을  
빈첸시오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 \* 5월 12일 : 주일학교 종강
- \* 5월 19일 합동미사 - 첫영성체식

안국학교 소식

- \* 5월 18일 : 종강식 및 학습발표회
- \* 5월 19일 : 교중미사 중 노래 발표
- \* 5월 25일 : 메모리얼데이 휴교
- \* 6월 1일 : 소풍